

가인이 아닌 예수의 길로

‘가인이 아닌 예수의 길’이란 자신의 형제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방식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지난 4월 2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래 남한을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활동은 크게 약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눈엣가시와 같던 대북 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이 창설 15년 만에 4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여 무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전방위적 협력과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남한은 4월 8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약천후에도 북한 미사일 차량의 움직임과 병력 이동, 북한 지휘부 동선 등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할 우리군의 ‘눈’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여 총 5기의 위성으로 북한군의 상세한 동향을 두 시간 단위로 감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예산은 약 59조 4천억 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입니다. 북한의 국방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세계 58위 수준인데,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육해공 전략무기에서는 남한이 앞서지만, 핵무기를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한은 매우 위협적인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위협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며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확대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불신하며 서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무기를 더욱 강화하며 안보의 갑옷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방어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서로 겨누는 채 이 자그마한 한반도 땅에 무기를 가득 쌓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를 겨누는 온갖 무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서로를 제거하려는 살상용 무기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날이 언제 올까요? 남북한의 국방비가 각자의 무기 창고를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재정으로 활용되는 날이 언제 올까요?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적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남과 북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인처럼 반목하며 서로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쌓여가는 무기들이 죽이는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사역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보내온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 사건에 이어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인 박해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기독교 박해는 더욱 극심해져 왔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혀 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

본문: 요한일서 3장 11-12절, 16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 **그(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자신의 형제 아벨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요일 3:12)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일차적인 이유는 그가 악한 자 즉 사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NASB)에서는 이 말씀을 “가인처럼 말라”(not as Cain)로 표현합니다. 이는 성도가 악한 자에게 속하는 ‘악한 인격’을 갖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6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인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참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여 살해한 가인과 달리 예수께서는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며, 그를 제거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경험한 남북한에도 적용됩니다. 1950년에 발발한 사변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과 북은 여전히 한민족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이듯이 남과 북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6·25전쟁은 형제자매 간에 싸운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필자의 부모님은 6·25전쟁 전에 7세 된 아들 하나와 어린 두 딸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부모님은 아들을 먼저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후 두 분은 어린 두 딸과 함께 큰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참전으로 남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그 피난길에 어린 두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딸을 땅에 묻고 피난길을 계속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고향에서 가져온 붉은 돈과 짐까지 다 내버리셨습니다. 1953년 휴전선이 그어진 뒤, 부모님은 북에 두고 온 큰아들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남한 땅에서 낳으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제 기억에는 설날 때마다 북에 두고 온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먹이시던 아버님과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큰 형님은 여전히 북쪽에 살고 있고, 아우인 저는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가 북과 남에 따로 살면서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전쟁 중에 죽은 제 누님들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도 그리운 고향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간에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고 생사도 모른 채 명이 든 가슴으로 살아야 하는 분단된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70년 넘게 자기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해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곁의 탈북민들 사연을 들어보면,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은 여전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의 생사조차 모른 채 20년을 살아온 탈북민 어머니의 아픔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느 탈북민 여성의 가족은 북한과 중국, 남한 세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흩어진 채 살아야 하는데, 남과 북이 한민족이 아니라고요? 남과 북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아직도 남북의 형제자매끼리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살상 무기를 쌓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동생을 죽인 가인이 아닌 형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었다면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북한의 형제가 서로 죽이려 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한민족 복음통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통일 공동체는 선지자 미가의 말씀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미 4: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한반도 땅 위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무기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바뀌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신학적 관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창세기에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분석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에 비해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벨은 아우이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가인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추어서 자신의 제사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readjustment of identity)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늠자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¹⁾ 하나님께서 아벨이 ‘더 낫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갔습니다.²⁾

볼프는 창세기 4장 1-16절과 요한일서 3장 11-17절을 연결하여 가인과 예수를 대조합니다. “자기 아우를 살해한” 반모범적인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³⁾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기준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가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가인의 악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한은 가인과 아벨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목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최악의 중력이 우리를 가인의 자리에 멈춰서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클 때 우리는 그 중력을 벗어나 예수의 길을 본받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47-148.

2) 위의 책, 149.

3) 위의 책, 153.